

일상적이고 익숙한 공간 속에 흰 날개를 단 한 천사가 불쑥 나타난다. 김소희의 [Wings of Desire] 시리즈는 천사로 분장한 작가가 자신의 모습을 셀프 포트레이트 형식으로 담아낸 것이다. 평범하게 거리를 걷는 사람들 사이로, 혹은 각자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천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다.

많은 현대 사진이 마치 영화를 촬영하듯 내용에 따라 여러 상황과 배경을 연출하고 이를 사진으로 완성시킨다. 김소희도 이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작업 계획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모습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진실 되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진'이라는 실재의 재현을 기반으로 하는 도구는 스스로가 직접 경험한 행위의 진실성을 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천사로서의 경험을 가능한 자연스러운 일상적 분위기 속에서 표현하기 위해 깃털로 제작한 천사 날개를 작가가 직접 달고, 자신이 찾은 적절한 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이 천사로 분장한 작가의 모습을 의식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 후에 노출을 달리 하여 셀프 타이머로 자신의 모습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이를 합쳐 만든 회화적 장면 속에 천사라는 초현실적 대상을 그려낸다.

이러한 천사의 모습은 바로 김소희 자신의 삶을 반영한 대리자이다. 그런데 작가는 왜 천사가 되었을까? 그리고 천사는 왜 인간의 세계에 나타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김소희가 [Wings of Desire] 시리즈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소희는 왜 천사가 되었을까? 흔히 흰 옷을 입고 등 뒤에 흰 날개를 달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기독교에서의 천사는, 신을 보필하고 신과 인간의 중간에서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김소희는 천사가 되어 인간들의 일상 속에 나타났다. 김소희가 이처럼 인간 세계에 속하지 않는 존재인 천사가 된 이유는 천사의 전생이라고 할 수 있는 [Wings of Desire] 시리즈 이전 작업에서부터 이어진다.

김소희의 이전 작업은 [Why] 시리즈이다. 이 일련의 작품들은 [Wings of Desire]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셀프 포트레이트 형식의 '죽음'을 주제로 한 흑백사진이다. 여기서 보여주는 '죽음'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극단적 선택인 자살이다. 김소희는 수많은 자살 사례들을 모으고 이 중 몇 가지를 골라 이를 재현하여, 자살을 대리 체험하면서 느꼈던 카타르시스와 죽음의 의미를 [Why] 시리즈에서 보여주었다. 고통스러운 외로움과 끝없는 혼란, 소외된 삶의 끝에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인간에 대해 작가는 '이곳이 자신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나 어쩔 수 없이 뿌리 내리고 있는, 지상에 정착하기를 망설이는 자' 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Why] 시리즈에서 이 세상이 자신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자살한 인간이 [Wings of Desire]에서 천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자살을 통해 한 인간이 천사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이 천사는 자신의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계 속에서 적응하지 못해도 다시 자신의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Wings of Desire] 시리즈는 천사가 된 김소희가 천상이 자신의 세상이 아님을 감지하고, 자신을 뿌리내릴 수 있는 세상을 찾고자 다시금 지상으로 내려와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에 관한 것이다. 천사는 인간세계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처럼 신문을 읽고 놀이공원을 가고 낮잠도 즐긴다.

천사가 본연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인간의 일상 속에 나타나는 이유 또한 '죽음'과 연관된다. [Why] 시리즈에서 김소희는 자살이라는 '죽음'을 통해 세상에 정착하지 못하는 부적응상태에서 진정한 주체와 자아를 찾기 위해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를 초월하고 벗어나고자 했다. 주체는 타자와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스스로를 규정해 나가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초월한 절대적인 타자와의 만남이 요구된다. 즉, 자신이 속한 세계에 정착하지 못하고 부적응 상태로 남아있던 주체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체는 전생에서와 같이 자신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세계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천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천사의 이러한 욕망은 자신에게 주어진 세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새롭게 맞이하게 된 세계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야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김소희의 인간이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자신의 본질을 파악하고, 새롭게 맞이한 천상이라는 세계 밖으로 나아가 천사에게는 초월적인 세계와 만나고자 한다. 즉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세계에 속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점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홀로 우두커니 서 있고,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거울에 비쳐지지도 않고, 동물원의 동물조차 쳐다봐주지 않는 천사의 모습을 통해 극명하게 보여준다.

천사는 인간이라는,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와의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적 모습을 찾고자 하지만, 이러한 욕망은 역설적으로 천사를 여전히 철저히 소외된 존재로 남게 만들고 있다. 결국 [Wings of Desire] 시리즈에서 작가는 천사가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소통하고자 하는 욕망,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소통의 가능성이 닫혀 있음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욕망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다시 천사에게 '자살'이라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하게 된다.

[Why]와 [Wings of Desire] 시리즈에서 김소희는 작가로서 그리고 한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자살이라는 금기시된 주제를 다루면서 죽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며, 죽음 뒤에 또 다른 삶이 있고 그 삶 안에는 또 다른 고통이 반복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자살과 죽음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한 인간의 죽음이 한 천사의 탄생인 것처럼, 작가는 '죽음'이 태어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삶'과 '죽음'이 늘 우리 곁에 있고 피할 수 없이 마주쳐야 할 현실임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김소희는 다음 작업에서 자살한 천사가 현실의 김소희로 다시 태어나 겪는 사건에 관한 작업을 계획 중이다. 죽음을 하나의 끝으로 보지 않고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 김소희는 끊임없는 삶과 죽음을 통해, 스스로를 세상과 소외시키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각자 그들만의 솔직한 내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